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3(1) 정읍사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정읍사」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시어나 시행의 의미, 화자의 심리를 알아 놓고 학습 활동에 제시된 배경 설화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하거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둘'과 '존 뒤'가 대조적이며 '둘'은 원형적 상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고대 국어 표현을 알고 이를 현대어로 풀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둘하 노피곰 도득사
어기야 ①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툽디리
⑤ 져재 녀러신고요
어기야 ③ 존 뒤를 드뒤을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④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기야 ⑥ 내 가논 뒤 점그를세라
어기야 어강도리
아으 다툽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

2. <보기>를 바탕으로 ①~⑥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읍은 전주에 소속된 현(縣)이다. 이 고을 사람이 행상을 떠나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그 아내는 산 위 바위에 올라가 남편이 있을 먼 곳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염려하였다. 고개에 올라 남편을 기다리던 아내는 언덕에 망부석으로 변해 남아 있다고 한다.

– 고려사 악지, 「삼국 속악 백제조」

- ① ①에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다.
- ② ⑤에는 남편의 직업이 상인임을 알 수 있다.
- ③ ③에는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 ④ ④에는 남편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아내의 당부가 나타난다.
- ⑤ ⑥에는 남편의 안전을 위한 아내의 희생 의지가 드러난다.

1. '둘'의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연의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는 존재
- ②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
- ③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존재
- ④ 임의 무사 귀환을 도와줄 존재
- ⑤ 시적 청자이자 기원의 대상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정읍은 전주(全州)의 속현이다. 정읍 사람이 행상을 나가서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자 그 처가 산 위의 둑에 올라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이 밤길을 가다 해를 입을까 두려워함을 진흙물의 더러움에 부쳐서 이 노래를 불렀다. 세상에 전하기를 고개에 올라가면 망부석이 있다고 한다.

- 정인지 외, 『고려사』 권 71, 「악지 2」

- ① '둘'은 화자와 남편을 함께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로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비는 대상이다.
- ② '노피곰'과 '머리곰'은 화자의 남편이 고귀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③ '저재'는 남편이 행상인임을 짐작하게 한다.
- ④ '즌 뒤를 드디을세라'에는 위험한 상황에 빠질지도 모르는 남편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담겨 있다.
- ⑤ '내 가논 뒤 점그를세라'에는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내포되어 있다.

4.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피곰'과 '머리곰'은 안전을 소망하는 남편의 심정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저재'는 아내가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드디을세라'는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노코시라'는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권유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점그를세라'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날이 저물까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군.

5.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어괴야 어강됴리 / 아으 다흥디리'와 같은 여음을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노피곰'과 '머리곰'은 강세 접미사를 포함한 시어로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낸다.
- ④ '둘'과 대립적인 의미로 쓰인 '즌 뒤'를 통하여 대상을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느이다 노코시라'에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신유형

「정읍사」의 내용을 묻는 문제뿐만 아니라 「송인(送人)」과의 비교를 묻는 문제, 「송인(送人)」에 드러나는 특징을 묻는 문제, 「정읍사」에 드러나는 문법적 특징을 묻거나 형식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정읍사」에 드러나는 '하', '~시라', '~르세라'와 같은 문법적 특징을 알아 놓아야 하고, 학습 활동에 제시된 기록 문학이자 한문 문학에 속하는 「송인(送人)」과 구비 문학이자 국문 문학에 속하는 「정읍사」의 비교 및 「송인(送人)」에 드러나는 도치법, 설의법 등의 표현 방법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6~7】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둑에 ⑦ 풀빛 고운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別淚年年添綠波 ⑧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 정지상, 「송인(送人)」

(나)

둘하 노피곰 도드샤

어고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고야 어강됴리
 아으 달롱디리
 ⓒ 져재 녀러신고요
 어고야 ⓒ 준 뒤를 드디울세라
 어고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고야 내 가논 뒤 점그룰세라
 ⓒ 어고야 어강됴리 / 아으 달롱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

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정해진 형식에 따라 쓰인 구비 문학의 일종이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대립적인 시어를 사용해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남편과 이별한 그리움을 자연물에 대응시켜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국문으로 기록되어 조선 시대까지만 가사가 전해졌던 백제 가요 중 하나이다.
- ⑤ (가)의 '물'과 (나)의 '달'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원의 대상이다.

7. ①~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름다운 자연과 이별의 슬픔이 대조됨.
- ② ⓒ: 과장법을 사용하여 이별의 한을 극대화함.
- ③ ⓒ: 화자의 남편이 행상인임을 짐작할 수 있음.
- ④ ⓒ: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나타남.
- ⑤ ⓒ: 후렴구 또는 여음구라고 하는 이 부분을 제외하면 가사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임.

【8~1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⑦ 돌하 노피곰 도드사

어고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고야 어강됴리

Ⓐ 져재 녀러신고요

어고야 ⓒ 준 뒤를 드디울세라

어고야 어강됴리

어느이다 노코시라

어고야 ⓒ 내 가논 뒤 점그룰세라

어고야 어강됴리

아으 달롱디리

– 작자 미상, 「정읍사」

(나)

雨歇長堤草色多 비 갠 긴 둑에 ⓒ 풀빛 고운데

送君南浦動悲歌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 대동강 물이야 언제 마르리.

別淚年添綠波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

– 정지상, 「송인(送人)」

8.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후렴구로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 ② 3장 6구로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다.
- ③ 대조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다.
- ④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정서를 드러낸다.
- ⑤ '기-승-전-결'의 4단 구조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9. ①~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 화자의 높임의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② ㉡: 화자가 걱정하는 대상의 직업을 짐작하게 해 주는 단서로 보이는군.
- ③ ㉢: ㉠과 대립적인 이미지로 부정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는군.
- ④ ㉣: '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시적 의미가 다양해지는군.
- ⑤ ㉤: 떠난 임의 고운 모습을 풀빛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군.

10.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달에게 기원하고 있다.
- ② (가)의 화자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행상인으로 달님에게 자신의 소망을 기원하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노래하며,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 ④ (나)는 '서경(1·3구)-서정(2·4구)'으로 서경과 서정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기승전결의 구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 ⑤ (가)는 우리말로 된 한국 문학이지만 (나)는 원문이 한자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없다.

1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둘 다 3음보의 운율이 드러나 있어 시조의 원형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가)와 (나)는 둘 다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이다.
- ③ (가)의 '둘'은 광명을, (나)의 '물'은 '이별'을 의미하는 원형적 상징물이다.
- ④ (가)의 '둘'과 '준 뒤', (나)의 '남포'와 '대동강'은 각각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이다.
- ⑤ (가)는 '둘'의 이동 경로를, (나)는 화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노래하고 있어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

12. 위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시조의 3장 6구 형식과 유사하여 (가)를 시조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 ② (가)는 백제 시대 노래로 구비 전승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한글로 문헌에 기록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의 '송인'은 1, 2, 4구 끝에 운자를 배치한 '7언 절구' 한시로 한문 문학 작품에 포함될 수 있다.
- ④ (나)의 '송인'은 한자로 기록하기는 했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창작한 것으로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 ⑤ (가), (나)는 떠난 임을 기다리는 한국 여인의 모습을 잘 드러낸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다.

1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구비전승되다가 한글로 기록된 국문 문학이고, (나)는 한자로 기록되었으나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창작된 한문 문학으로 두 작품 모두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다.
- ② (가)의 '둘'은 천상적 존재이자 화자의 분신으로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나)의 '대동강 물'은 '눈물'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화자의 정서를 고조한다.
- ③ (가)의 '준 뒤'는 '둘'과 대비되는 공간으로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으로 해석되며, (나)의 '풀빛 고운데'는 '남포에서 임 보내며'와 대조되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
- ④ (가)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시조 형식의 기원으로 보기도 한다.
- ⑤ (나)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부각하고 있으며, 과장법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극대화한다.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①

‘둘’이 인연의 덧없음을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존재는 아니다.

②, ③, ④, ⑤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③)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로, 행상에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가 남편의 무사 귀가를 도와주길 기원하는 대상(②, ④, ⑤)이다.

2. 정답 ⑤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어둡거나 위험할까 염려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아내의 희생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남편이 밤길에 오다가 해를 입지나 않을까 염려’ 하던 아내는 달에게 멀리멀리 빛을 비추어 남편이 무사 귀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빌고 있으므로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② ‘져재’는 ‘저자에, 시장에’라는 의미이며, ‘녀려신 고요’는 ‘가 계신가요?’라는 의미로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③ ‘준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남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어느이다 노코시라’는 ‘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라는 의미로, ‘(남편이 위험한 곳에 갈 수 있으니 짐을) 어느 곳에든 (풀어) 놓으시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남편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는 아내의 당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정답 ②

‘노피곰’과 ‘머리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 ‘곰’을 활용하여 ‘높이높이’, ‘멀리멀리’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따라서 화자의 남편이 고귀한 삶을 추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①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로, 행상에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화자가 남편의 무사 귀가를 도와주길 기원하는 대

상이다. 따라서 화자와 남편을 함께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로 화자가 자신의 소원을 비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져재’는 ‘저자에, 시장에’라는 의미이며, ‘녀려신 고요’는 ‘가 계신가요?’라는 의미로 남편이 행상인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④ ‘준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며, ‘드디올세라’는 ‘디딜까 두려워라.’라는 의미이다. 이는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내 가논 뒤 점그룰세라’는 ‘내 임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라는 의미로, 남편이 돌아오는 길이 어둡거나 위험할까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과 남편이 무사히 귀가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것이므로 적절하다.

4. 정답 ①

‘노피곰’과 ‘머리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 ‘곰’을 활용하여 ‘높이높이’, ‘멀리멀리’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는 남편의 안전을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것이지, 안전을 소망하는 남편의 심정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② ‘져재’는 ‘저자에, 시장에’라는 의미이므로 행상인인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이 있을 만한 곳을 떠올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드디올세라’는 ‘디딜까 두려워라.’로 남편이 무사 귀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무사히 귀환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아내의 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노코시라’는 ‘놓아 버리십시오.’로 남편이 위험한 곳에 갈 수 있으니, 이를 걱정하며 짐을 어느 곳에든 놓아 버리라는 권유를 담고 있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을 걱정하는 마음을 담아 남편에게 권유하는 바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점그룰세라’는 ‘저물까 두려워라.’로 임이 가는 길이 어두워질까 봐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날이 저물까 걱정하는 아내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5. [정답] ⑤

‘어느이다 노코시라’는 ‘어느 것이나 다 놓아 버리십시오.’라는 의미로, ‘(남편이 위험한 곳에 갈 수 있으니 짐을) 어느 곳에든 (풀어) 놓으시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인식하고 여유 있는 자세를 가지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둘’이라는 대상을 호명하고, ‘둘’에게 기원을 하고 있으므로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둘’에게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하는 마음과 염려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어그야 어강됴리 / 아으 다툽디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후렴구)로, 이를 활용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노피곰’과 ‘머리곰’은 강조를 나타내는 접미사 ‘곰’을 활용하여 ‘높이높이’, ‘멀리멀리’라는 의미를 드러낸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남편이 무사 귀환하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이지만, ‘즌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둘’과 ‘즌 뒤’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하여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달에게 빌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6. [정답] ②

(나)의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이지만, ‘즌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둘’과 ‘즌 뒤’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하여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달에게 빌고 있으므로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에는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상황이 대조되긴 하지만 이를 통해 화자의 바람과 염려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다.

① (가)는 7언 절구, 한시이며 (나)는 고대 가요이다. (나)는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

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 전승될 수 있었고, 이것이 추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작품이지만 (가)는 애초에 기록 문학이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화자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둘’에게 기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를 ‘자연물에 대응’시켰다고 보기是很 어렵다.

④ (나)는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 전승될 수 있었고, 이것이 추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작품이다. 또한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로, 오늘날까지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의 ‘달’은 남편의 무사 귀환을 도와줄 수 있는 기원의 대상이지만, (가)의 ‘물’은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기원의 대상이 아니다.

7. [정답] ⑤

‘어그야 어강됴리 / 아으 다툽디리’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후렴구)로, 이를 제외하면 3장 6구인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사 형식의 원형이라고 볼 수 없다.

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이별의 슬픔이나 화자의 상황과는 대조되는 자연을 의미한다.

② 과장법을 활용하여 임과 이별한 화자의 슬픔과 한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③ ‘져재’는 ‘저자에, 시장에’라는 의미이며, ‘녀러신 고요’는 ‘가 계신가요?’라는 의미로 남편이 행상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④ ‘즌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며, ‘드듸을세라’는 ‘디딜까 두려워라.’라는 의미이다. 이는 남편이 위험에 빠질까 봐 걱정하는 화자의 마음이 담긴 것으로 적절하다.

8. [정답] ③

(가)의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이지만, ‘zenie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둘’과 ‘zenie 뒤’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립적인 의미를 가진 시어를 활용하여 행상 나간 남편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달에게 빌고 있으므로 주제를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상황이 대조되며, 이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두 작품 다 대조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① (가)는 '어그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지만 (나)는 후렴구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인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이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④ 자연물인 '돌'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에는 드러나지만, (나)에는 자연물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⑤ '기-승-전-결'의 4단 구조는 한시인 (나)에는 드러나지만, (가)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가)는 여음구를 제외하면 3단 구조를 지니고 있다.

9. 정답 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으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이별의 슬픔이나 화자의 상황과는 대조되는 자연을 의미할 뿐 떠난 임의 고운 모습을 빗대고 있는 것이다.

① '하'는 높임의 호객 조사로, '돌하'는 '달님이시여'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소원을 비는 대상인 '돌'에 대한 화자의 높임의 태도가 드러난다.
② '져재'는 '저자에, 시장에'라는 의미로, 화자가 걱정하는 대상인 남편의 직업이 행상인임을 드러내는 단서이다.

③ '즌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부정적이고 위험한 상황을 의미하며, ⑦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이므로 '돌'과 '즌 뒤'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내 가논 뒤'에서 '내(나)'는 화자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화자가 남편(임)을 찾으러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내(나)'는 화자의 남편(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임 가는 그 길 저물까 두려워라.'로 해석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내(나)'를 화자와 남편(부부)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부부가 함께 가는 그 인생 길 저물까 두려워라.'로 해석이 가능하므로 '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시적 의미가 다양해진다.

10. 정답 ④

(나)는 경치를 드러내는 1, 3구가 서경에 해당하며 화자의 정서를 '슬픈 노래', '눈물' 등을 통해 드러내는 2, 4구가 서정에 해당한다. 또한 (나)는 한시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경(1·3구)-서정(2·4구)'으로 서경과 서정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기승전결의 구조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가)의 화자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돌'에게 기원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은 맞으나, '남편이 자신의 사랑을 알아주기'를 기원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시장에서 장사하는 행상인은 (가)의 화자의 남편으로, (가)의 화자는 행상인인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임과 이별하는 슬픔을 노래하고 있긴 하지만, 대상에 대한 원망의 정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는 우리말로 된 한국 문학이며, (나)는 원문이 한자로 되어 있는 한시이다. 두 작품 모두 작가가 한국인이고,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으며, (나)는 한자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 문학 작품이므로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 정답 ③

(가)의 '돌'은 '즌 뒤'를 밝혀 주는 대상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것으로, 원형적 상징으로서 '달'은 '광명'이나 '기원의 대상'을 의미한다. 또한 원형적 상징으로서 '물'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 단절과 이별, 삶과 죽음, 정화 혹은 정화를 통한 재생, 생명과 삶의 원천, 충만한 사랑 등 다양한 의미를 지니는데, (나)에서의 '물'은 '이별'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① (가)는 '어그야 어강됴리 / 아으 다롱디리'와 같은 여음구(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인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3음보의 운율이 드러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나)는 시조

의 원형이 되는 작품이 아니다.

② (나)는 사랑하는 임과 이별한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이별의 슬픔'을 노래한 시에 해당하지만, (가)는 행상 나간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아내의 간절한 마음이 드러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의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이지만, '즌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둘'과 '즌 뒤'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남포'와 '대동강'은 임과 화자의 이별의 공간이므로 대립적인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 없다.

⑤ (가)와 (나) 둘 다 특정 대상이나 화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며 노래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지 않는다.

12. 정답 ⑤

(가)는 돌아오지 않는 남편(임)을 기다리는 한국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지만, (나)는 이별의 슬픔과 정한을 드러낼 뿐 떠난 임을 기다리는 한국 여인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① (가)는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툽디리'와 같은 여음구(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인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임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백제 가요로,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 전승될 수 있었고 이것이 추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진 것이므로 한국 문학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나)는 칠언 절구의 한시로, 1, 2, 4구에서 각각 多(다), 歌(가), 波(파)를 통해 운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록 한문으로 되어 있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 문학 작품이고, '대동강', '남포' 등의 우리나라 지명이 등장하고 '이별의 정한'이라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어 한국 문학 작품으로 볼 수 있다.

13. 정답 ②

(나)의 '대동강 물'은 '눈물'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화자의 슬픔과 한을 고조하는 역할을 하지만, (가)의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로 남편을 기다리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긴 하지만 '화자의 분신'으로는 보기 어렵다.

① (가)는 우리말로 된 한국 문학이며, (나)는 원문이 한자로 되어 있는 한시이다. 두 작품 모두 작가가 한국인이고, 작품의 내용이 한국인의 정서와 사상을 담고 있으며, (나)는 한자로 기록되기는 했지만,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창작된 한문 문학 작품이므로 한국 문학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의 '둘'은 어둠을 밝히는 빛의 존재이자 남편의 안전을 지켜 주는 존재이지만, '즌 뒤'는 '어두운 곳, 남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의미하므로 '둘'과 '즌 뒤'는 대립적인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아름다운 자연과 화자의 상황이 대조되며, 이를 통해 이별의 정한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가)는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툽디리'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인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임을 알 수 있다.

⑤ (나)는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 활용 등 다양한 감각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부각하며,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와 같이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눈물 때문에 대동강 물이 마를 날 없을 것이라는 과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고통의 크기를 인상적으로 강조하므로 적절하다.

14. 정답 ⑤

(가)에는 남편을 원망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으며, (나)는 '푸른'이라는 색채에는 드러나지만 색채의 선명한 대조는 드러나지 않는다.

① (가)는 '어기야 어강도리 / 아으 다툽디리'와 같이 특별한 의미가 없는 여음구(후렴구)를 제외하면 3장 6구인 시조 형식의 원형을 지닌 노래임을 알 수 있다.

② (가)는 작품의 내용과 정서가 민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오랫동안 구비 전승될 수 있었고, 이것이 추후에 한글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작품이다. 또한 국문으로 기록되어 전하는 가장 오래된 노래로, 오늘날까지 현전하는 유일한 백제 가요이므로 적절하다.

③ (나)는 3구와 4구가 도치를 이루고 있으며 3구의 '언제 마르리.'에서 설의적 표현을, 4구의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물을 보태나니.'에서 과장법을 활용